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이민정	학번	██████████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바콜로드
파견대학	웨스트네그로스대학(WNU)	기간	2014. 12. 21(일) ~ 2015. 2. 14(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기숙사에서는 조금 멀었지만 벤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고, SM쇼핑몰이나 락슨 스트리트와 가까이 있어서 점심에 들리기 편했습니다. 규모는 처음 봤을 때 작아보였지만 적당한 크기였고 시설도 괜찮고 쾌적해서 수업하기 무리 없는 장소였습니다. 다만 항상 긴 바지와 운동화를 입고/착용하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문법, 글쓰기, 발음, 토론, 말하기, 이디옴 이렇게 6과목이 보통으로 수업방법은 튜터마다 각각 달라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법(Cha Cha): 제 입장으로는 잘 가리켜주는 튜터였고, 재미있으면서도 열정이 있는 튜터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이해할 수 있을 때 까지 예를 들어주면서 알려주셨습니다.</li> <li>- 글쓰기(Wella): 글쓰기 수업이 일반적으로 튜터가 시키고 우리가 글을 써야 해서 처음에는 정말 재미없고 못 가리킨다고 생각했었는데, 친해지고 난 이후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서브튜터가 수업을 대신 진행해 주었는데 그때 웰라가 정말 잘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li> <li>- 발음(Lor): 수업을 다른 튜터에 비해서 정말 빨리 나가긴하지만 대충 넘기지 않고 정확히 알려주고 연습시켜주는 튜터였습니다.</li> <li>- 토론(Jam): 처음에는 고리따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미있는 않지만 따분하지도 않고, 단어라든지 여러모로 잘 배울 수 있는 튜터입니다. (그치만 그룹튜터로는 요한과 프린세스를 추천해요!👍👍)</li> <li>- 말하기(Stine): 친구같이 편하고 재미있는 튜터입니다. 저는 궁금한게 있거나 모르는게 있을 때마다 물어봤기 때문에 책을 초반에만 사용하고</li> </ul>

	<p>그 다음부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말을 많이 해볼 수 있고, 다른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가끔은 상담도 하고 가끔은 정말 여자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할 때 문법 등이 틀렸어도 넘어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미리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디움(Dondon): 지식이 정말 많은 튜터입니다. 이디움을 배우면서 그와 관련된 역사라든지 다른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해서 가끔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해탈하고 난 뒤부터는 남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일석이조!) 진도를 많이 나가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디움을 더 쉽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li> <li>- 그 외(요한, 프린세스): 요한과 프린세스는 그룹수업에서 서브튜터로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프린세스는 한국어도 잘하고 반응도 잘 해주기 때문에 수업이 정말 재미있고, 요한은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할 때 유용한 것들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만약 제가 바콜로드로 다시 가게 되면 요한 수업을 들을 계획일 정도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튜터입니다.</li> </ul>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li> </ul> <p>보라카이를 3박 4일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라카이는 신청한 사람에게 한해서 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모두 신청해서 갔습니다. 보라카이에서는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이 꽤 들지만 안 갔다 오면 후회할 정도로 정말 멋있기 때문에 꼭 가세요!</p> <p>가기 전에 벤과 숙소비용으로 5800페소정도 냈었고, 갈 때는 액티비티 비용까지 합쳐서 적게는 5000페소~ 7000페소+a 정도 들고 가면 됩니다. 저는 6500페소 아래로 사용했습니다. 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라실장님이 알려주세요!</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처음에 갔을 때는 비가 자주 내렸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우산은 삼단우산 사서 가져갔는데 도착해서 피자마자 바람 때문에 고장 났습니다.. ππ SM에서 장우산 100페소정도에 파니까 처음에는 빌리고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착하고 다음 날?에 바로 SM갈 거 예요!)</p>
안전	<p>저희는 안전하게 잘 다녀왔지만 저희가 보라카이에 있는 동안 총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심하 잘만 다닌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는 사용할 만하고, 별도 잘 보이고 고양이 나라일 정도로 고양이가 정말 많아요!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매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숙소에서 재미가 나올 수도 있는데 리자드 잡아서 방안에 두면 사라진다고 해서 저희는 리자드 잡아서 일부러 방에 넣어 놓기도 했어요! 도마뱀이 진짜진짜 많은데 나중엔 친구처럼 인사도 하게 되요~</p>
식사	<p>학교식당(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고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게 흠이지만 먹을 만해요! 항상 과일도 나오는데 수박이 맛이 없을 때도 많아요.</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오전에 학교 갈 땐 벤을 이용했고, 따로 쇼핑하러 나간다면 밥 먹으러 나갈 때는 지프니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너무 늦었을 때는 택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가끔 씩 트라이시클도 탔는데, 트라이시클은 위험할 때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타셔야 해요. 주의 사항은 택시에는 미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고, 트라이시클 탈 때는 흥정하세요!</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1,281,280	출국 전 사전 납부
	850,000	
합계	850,000	

####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 가져가봤자 안보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들고 올 때 짐이에요.</li> <li>- 긴 바지 많이 챙겨 가세요, 학교 갈 때 짧은 거 입고 다니다가 학교 경비아저씨 짤릴 뻔 하셨어요.. ㅠ</li> <li>- 필리핀은 영수증이 있어도 환불이 안 되니까 유의 하세요~</li> </ul>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실 캐나다를 더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바콜로드를 갔다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어실력이 엄청 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퇴화한 느낌까지 들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사소한 영어 단어나 표현들을 이제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 합니다. 더 이상 필리핀과 필리핀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게 되었고,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계 어학연수를 통해 12명과 두 달동안 함께 생활하다보니까 이렇게 돈독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가족 하나를 더 얻은 기분입니다. 이 전에는 약간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저에 대해 비관적이었는데 이들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배려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고,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너무 비관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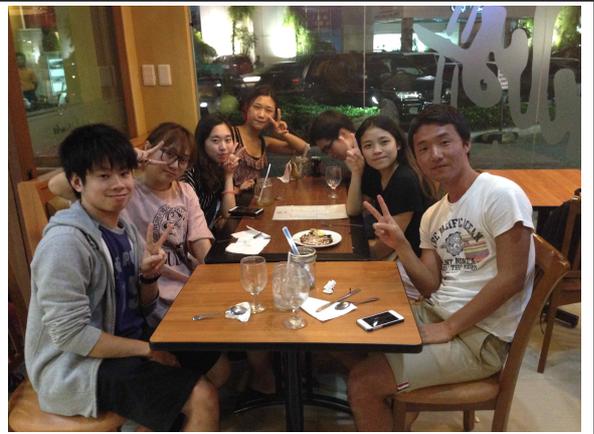
앞으로 저는 한 학기 휴학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부분들을 모두 고치도록 노력 할 것이고, 영어실력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끔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영어실력을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WNU에서 마지막 날 과자파티</p>	<p>WNU 야외에서 단체사진</p>



보라카이 푸카셀비치



일본인 친구들(마시,마사) farewell party



WNU튜터들이랑 올드팔라팔라에서 dinner



OKEA 튜터들이랑 단체사진